

精油産業의 構造改編方案

- 動力資源部 油政課 -

I. 精油産業의 실태

1. 精油産業의 중요성

石油은 他에너지源 보다 열효율이 높고, 취급이 간편하며 工業用 기초원료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主宗에너지의 위치를 지키고 있으며, 기술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을 동시에 고려해 볼 때, 금세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源으로 계속 존재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 초까지만 해도 에너지의 主宗資源이 石炭이었으나,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의 핵심사업으로 精油工場을 최초로 건설, 가동하게 되고 그간 산업의 고도화와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석유소비는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石油은 우리나라의 主宗에너지가 되었으며, 석유류 소비가 총에너지 소비의 50%, 총수입액에 대한 석유수입 금액의 비중이 27%를 상회함으로써, 石油類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게 되었다.

精油産業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 보면, 전체 石油化學업종 전체 생산액의 35.4%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가가치효과도 전체의 19.4%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도의 자본 및 기술집약적 裝置産業이라 할 수 있으며, 석유류 소비가 하루에 약 50만배럴 규모에 이르고, 석유류제품 총 매출액이 6조원에 이르게 됨으로써, 精油産業의 효율적 운용은 곧 경제성장과 직결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 경제에서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精油産業은 경제성장에 필수불가결한 동력원인 基礎 에너지의 안정공급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반국민이 일상 사용하는 연료는 물론 생활필수품을 만드는 石油化學製品의 기초소재를 공급하게 됨으로써, 우리들의 일상 의식주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公益産業으로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할 것이다.

또한 精油産業의 고용효과는, 精油産業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수가 약 5천 여명에 이르며 대리점, 주

石油輸入 金額의 총수입액에 대한 比重

(單位: 100만 달러)

구분 년도	(A) 總輸入金額	石油輸入金額			%	
		原油(B)	製品(C)	計(D)	B/A	D/A
1972	2,522	221			8.8	
1973	4,240	305			7.2	
1974	6,852	1,108			16.2	
1975	7,274	1,328	* 11	* 1,339	18.3	18.4
1976	8,774	1,580	* 77	* 1,657	18.0	18.9
1977	10,811	2,000	* 65	* 2,065	18.5	19.1
1978	14,972	2,174	* 138	* 2,312	14.5	15.4
1979	20,339	3,331	* 85	* 3,416	16.4	17.4
1980	22,291	5,641	394	6,035	25.3	27.1
1981	26,131	6,504	469	6,973	24.9	26.7
1982	24,251	6,075	590	6,665	25.1	27.5

- (註) 1 : 원유 및 제품 수입금액은 C&F가격 기준임
 2 : *는 한국은행 경제통보 연보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였음.
 3 : 총수입 금액은 경제기획원 한국통계 월보 각 호 기준.

□ 政策資料 □

유소 등 유통단계에 종사하는 인원을 모두 합할 경우, 수만명에 달하며, 관련산업의 연관효과까지 감안하면, 그 고용효과는 엄청나다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石油類는 국가비상시, 필수물자임을 감안할 때 精油産業은 국가안보측면에서도 절대 필요한 전략산업임을 간과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精油産業은 국민경제 및 국가안보적인 측면에서 직접, 간접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간사업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안정성장에 지속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계속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 精油産業의 당면문제

가. 稼動率의 저하

국내 精油産業은 그 전개과정에서 70년대초까지는 低價의 에너지 공급으로 국민생활의 편의와 경제발전의 고도화를 달성하는데 기여한 바 있으나, 73년의 1차石油危機 및 79년의 2차 石油危機를 거치는 동안 수차례의 대폭적인 原油價 인상과 공급 불안정으로 國內에너지 政策의 흐름은 석유 의존도를 감축시켜 에너지의 석

유 편중을 지양하는 한편, 강력한 에너지 소비절약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또한 79년을 정점으로 계속된 세계적인 불황과 경기침체는 석유수요의 급격한 감소를 야기 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石油類 수요는 64년 하루 2만 배럴수준에서 79년 50만 8천 배럴 수준으로 25배 늘어났으나 제2차 石油危機 이후 석유류 소비는 크게 둔화되어 80년에 1%, 81년 0.4%, 82년 3%씩 각각 감소 하였다.

国内油類需要의 변동추이

구 분	77	78	79	80	81	82
需 要(천B)	414	456	508	501	499	483
증 감 율(%)	16	10	11	△ 1	△ 0.4	△ 3

한편 國內精製能力은 78년의 580천 B/D에서 제2차 石油危機이전부터 추진 되어온 雙龍精油의 60천 B/D (80.5)와 湖南精油의 150천 B/D(81.6)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현재 790천 B/D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유류수요 감퇴와 정제능력 증대는 精油産業의 가동율을 급격히 저하하는 요인이 되어 油類需要의 계절성 및 정기보수 기간을 감안한 적정가동율인 75~80

에너지消費実績

(單位: 石油환산천톤)

	合 計		石 炭 類		石 油 類		水 力		原 子 力		薪 炭	
		구성비 (%)		구성비 (%)		구성비 (%)		구성비 (%)		구성비 (%)		구성비 (%)
1966	13,057	100.0	6,029	46.2	2,171	16.6	246	1.9	—	—	4,611	35.3
1967	13,943	100.0	5,577	40.0	3,734	26.8	238	1.7	—	—	4,394	31.5
1968	15,823	100.0	5,407	34.2	5,510	34.8	232	1.5	—	—	4,674	29.5
1969	17,738	100.0	5,591	31.5	7,435	41.9	357	2.0	—	—	4,355	24.6
1970	19,679	100.0	5,829	29.6	9,294	47.2	305	1.5	—	—	4,251	21.6
1971	20,868	100.0	5,872	28.1	10,559	50.6	330	1.6	—	—	4,107	19.7
1972	22,307	100.0	6,032	27.0	11,943	53.5	342	1.5	—	—	3,990	17.9
1973	25,627	100.0	7,563	29.5	14,086	55.0	306	1.2	—	—	3,672	14.3
1974	26,087	100.0	7,765	29.8	14,320	54.9	476	1.8	—	—	3,525	13.5
1975	27,644	100.0	8,075	29.2	15,728	56.9	421	1.5	—	—	3,420	12.4
1976	30,306	100.0	8,867	29.3	17,817	58.8	447	1.5	—	—	3,175	10.5
1977	34,371	100.0	9,638	28.0	21,250	61.8	348	1.0	18	0.1	3,117	9.1
1978	38,252	100.0	9,894	25.9	24,287	63.5	452	1.2	581	1.5	3,038	7.9
1979	43,463	100.0	11,844	27.3	27,358	62.9	582	1.3	788	1.8	2,892	6.7
1980	44,115	100.0	13,199	29.9	27,034	61.3	496	1.1	869	2.0	2,517	5.7
1981	46,052	100.0	15,243	33.1	26,916	58.4	677	1.5	724	1.6	2,492	5.4
1982	45,974	100.0	15,450	33.6	26,662	58.0	501	1.1	944	2.0	2,417	5.5

% 수준을 크게 밑도는 가동수준에 머물고 있다.

精製施設의 가동을저하 추이는 전세계적인 공통현상으로 세계 각국도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중에 있다.

国内精油産業의 稼働率推移

구 분	77	78	79	80	81	82
精製能力(천B/D)	440	580	580	640	727.5	790
原油투입량(〃)	418	458	501	493	489	474
稼働率(%)	95	79	86	77	67	60

〈註〉 연간 精製能力은 시설완공 시점을 고려한 것임.

이러한 稼働率 저하 현상은 석유제품 생산원가중 固定費 부담을 증가 시키는 결과를 초래 하였으며, 특히 불황기에 시설증대를 추진한 기업은 투자에 따른 장기간 회수 불가능한 막대한 부채를 짊어지게 되었다.

또한 稼働率 저하 현상은 精油社間의 가동정상화를 위한 시장경쟁 격화를 야기시켜, 수급질서의 문란과 유통시장 과다에 따른 精油産業의 추가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81년 精油社間의 휘발유 시장판매 경쟁과 82년 精油社와 수입업자 간의 LPG 시장 판매경쟁은 精油産業의 가동을 저하에 따른 자구책 강구의 과열된 양상이라 하겠다.

따라서 稼働率 저하의 장기간 지속현상은 精油産業의 안정성장 기반을 크게 약화 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므로 이에 대비한 政策의 전개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나. 經營与件의 不安要因 尚存

(1) 國際原油市場의 불안정

精油産業 經營에 항상 내재하고 있는 심각한 불안요인은 국제원유 시장의 급격한 변화이다.

국내 정유산업은 석유제품 코스트의 71%를 차지하는 原油의 구입을 전량 해외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國際原油價 변동이나 原油 수급상황 변화는 精油産業의 經營상태에 직결될 뿐만 아니라, 油價등 국민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79년 제2차 石油危機時 급격한 가격상등과 물량 부족 사태로 인하여 精油産業은 일시에 막대한 原油輸入代金を 지불하여야만 되었다.

原油輸入代金の 推移

구 분	78	79	80	81	82
導入物量(백만배럴)	155	167	186	183	178
輸入代金(C&F백만달러)	2,174	3,331	5,641	6,504	6,075

또한 原油輸入代金の 단기간 내의 급증현상에 따라 원유 외상매입금(원유도입유전스)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 확대가 수반되어 精油産業의 재무 구조는 극히 불안정하게 되었다.

精油社는 原油및 도입제품을 생산판매하여 代金を 회수하기 까지에는 수송기간, 재고보유기간, 외상판매기간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原油 및 제품제고 외상채권 등 각종 형태의 유동자산(운전자본)이 필요하게 되며 이러한 운전자본을 자기자금으로 충당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크므로 이를 原油導入 유전스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우기 原油價 폭등시에 国内油價 조정시기를 지연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유보할수도 있으나 결국 精油産業에 회복이 어려운 심각한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또한 国内油價를 일시에 대폭 인상하게 되므로 궁극적으로는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原油導入 유전스 利子の 推移

구 분	78	79	80	81	82
原油외상매입금잔액(억원)	2,330	5,094	14,377	17,000	16,246
(평균 외상기일)	(67)	(93)	(158)	(150)	(139)
유전스 利子(억원)	107	164	1,029	2,300	1,510

世界精油産業의 稼働率 比較

(單位: 천B/D)

구 분	프랑스	西 独	이탈리아	네덜란드	英 国	美 国
1980년	시 설 능 령	3,321	3,008	3,912	2,008	2,602
	가 동 율(%)	68.6	68.2	50.1	50.4	66.4
1981년	시 설 능 령	3,235	2,866	3,912	2,008	2,602
	가 동 율(%)	60.3	58.8	47.2	39.1	59.0

최근 國際石油市場의 움직임은, 주요소비국들의 소비 절약, 代替에너지 개발추진 등과 세계적인 불황에 의한 수요침체로 81년 중반 이후 공급 과잉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83년 3월에는 OPEC 産油國들이 公示價格을 인하 조정하는 등 공급과잉 악화를 막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기는 하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석유자원 부존량의 有限性을 고려할 때 낙관할 수 없는 실정이며, 더우기 주요생산 지역인 中東地域의 政情不安을 감안 할 때 언제 제 3의 石油危機가 닥쳐 올러는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항상 석유위기에 대비한 적극적인 対応戰略이 필요하다 하겠다.

(2) 換率의 不安定

國際原油價의 불안정과 함께 精油産業의 안정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換率의 급상승이다.

石油은 달러로 수입되므로 原油의 도입코스트는 換率의 움직임에 따라 변동되지 않을 수 없으며, 精油産業의 경영은 제품코스트가 換率과 함께 변동된다는 의미에서 換率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석유 제품코스트의 약 92%가 換率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原油輸入에서는 보통 달러貨 수입금융(시퍼즈 유전스 및 수입유전스)가 이용되고 있으며, 原油 구입시점의 환시세로 달러에서 원화로 환산된 금액이 원유 도입 코스트로 계상됨에도 불구하고, 원유대금지불을 위한 원화에서 달러로의 실제교환(Exchange)은 원유 구입시점이 아닌 輸入유전스 결제시에 행해짐에 따라서 原油 구입시점과 수입유전스를 결제하는 시점과의 사이에서 소위 換리스크를 갖게 되어, 이 사이에 換率이 인상될 때, 精油産業은 換差損이 발생하게 된다.

이같은 외화수입 금융을 이용하는데 따라서 발생하는 換差損을 「유전스 換差損」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이같은 換率의 변동은 제품코스트의 大宗을 이루는 原油도입코스트의 변동을 통해, 또 외화수입 금융의 이용에 따른 「유전스 換差損」의 발생을 통해서 精油産業의 경영을 불안정화 시키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유전스 換差損 발생現況

	78	79	80	81	82
연 평균換率 (증가율)	485 (0)	485 (0)	622.6 (36.6%)	682.5 (6.1%)	727.4 (6.6%)
換差損(억 원)	-	-	2,905	1,200	1,281
(W/Bbl)	-	-	1,656	658	724

우리나라는 80년 1월 12일 20%의 원화평가절하를 실시 하였고, 동년 2월 變動換率制를 채택한 이후 계속적으로 換率이 상승하고 있으므로 國內精油社는 막대한 환차손을 부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精油社의 안정된 경영 여건 조성을 위하여는 換리스크 대책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가 없으며, 환율 변동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換리스크 対策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政府部門費用의 경직성.

국제 원유시장의 불안정과 換率의 불안정성 외에도 精油産業의 불황과 경영악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石油類稅의 重圧이다.

石油類稅의 증압은 精油産業뿐만 아니라, 산업발전과 소비자들에게도 에너지 코스트의 가중요인이 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石油類稅는 다른 부문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나 방위세를 제외하면, 特別消費稅의 과세품목과 그 稅率이 특징적이며, 지난 4월부터는 그간 영세율이 적용되던 原油에 대하여 關稅 5%를 부과 하게 되었다.

또한 석유의 수급 및 안정을 위하여 石油類에는 목적세 성격이 있는 石油事業基金이 부과되고 있다.

현재 국내 석유제품은 소비자 가격중 평균 26%가 政府部門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외국의 10-15% 수준에 비하여 상당수준 높게 책정되어 있어 자연 國內石油價格은 외국에 비하여 높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石油製品 消費者價格 構成內訳

政府部門費用	₩ 9,570/B	(26%)
流通마진	₩ 981/B	(3%)
精製費	₩ 1,282/B	(4%)
産油國비용	₩24,452/B	(67%)
소비자가격	₩36,285/B	
특별소비세	연간	3,400억원
부가가치세		5,800억원
原油關稅		2,000억원
제품관세		200억원
방위세		1,000억원
무역특혜자금		10억원
石油事業基金		5,000억원
합계		17,410억원

石油에 부과되는 公課金 비교 (單位: \$/B)

구분	韓國	日本	台灣	
原油	관세	1.45	0.28(정액)	0.73(정율)
	방위세	0.73		
	무역특혜	0.07		
	基金	3.19		
	小計	5.44	0.28	0.73
製品	특소세	2.30	4.01	4.69
	부가세	2.26	(정액: 휘발유세, 경유거래세)	(정율: 물품세)
	LPG관세	0.08		
	LPG기금	0.48		
	小計	7.06	4.01	4.69
總計	12.50 (소비자가 격의26.4%)	4.29 (10.8%)	5.42 (13.6%)	

또한 國內石油類稅는 石油事業基金을 제외하고는 從價稅(정률세)로 되어 있어 油價가 인상될수록 稅收는 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세부담은 가중되도록 되어 있어, 제 1, 2차 석유위기시에는 산유국의 원유가 폭등에 편승하여 稅收가 확대됨에 따른 국민의 부담 및 精油社의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가 되었다.

외국의 石油類稅制와 비교해 보면, 日本의 경우 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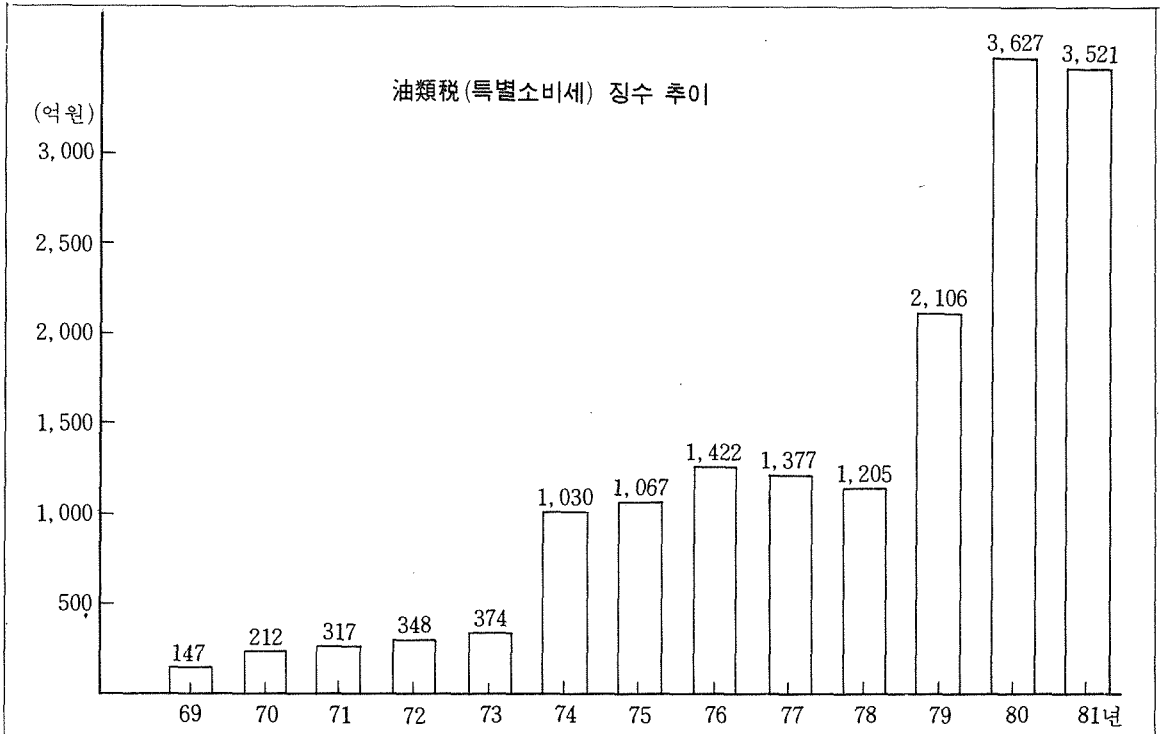
유관련세는 關稅이외에 가솔린稅, 輕油거래세, 石油가스稅, 항공기연료세 및 78년 6월 부터 새로 시행된 原油 및 수입석유제품에 대한 石油稅 등이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정액세이며 세수의 용도가 실제 납세자에게 혜택이 되돌아 가도록 석유비축, 에너지 정책지원, 도로정비, 비행장 정비 등 특정화된 目的稅이다.

한편 精油產業이 국영인 CPI (中國석유공사)에 의해 전담되고 있는 台灣의 경우, 석유류에 대한 稅金은 관세 및 물품세만이 부과되고 있으며, 關稅의 경우 석유 위기시 稅率을 반감하는 등(관세 2.5% : 2차 석유 위기시 1.25%, 原油價 하락시 2.5%)탄력적인 운용을 하고 있으며, 물품세는 자국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휘발유세와 벵커-C油 세율을 낮게 책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류관련 세제는 국민경제의 안정, 국제경쟁력의 유지 및 精油產業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탄력적인 운용이 절실한 실정이다.

다. 경영기반의 취약

國內精油產業은 과거 수익성, 안정성이 자동적으로 보장된다는 통념과는 달리, 실제로는 國內製造業평균 수



준에 비하여 낮은 수익성을 유지해 왔을 뿐만 아니라 79년 이후 수요감퇴로 精油産業은 稼動率의 저하, 高原 油価 환율의 급등, 稅制 및 가격조정의 경직성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재무구조도 크게 악화되어 왔다.

제2차 石油危機 이후 79년-82년 기간의 精油社의 경영성과를 살펴보면, 精油部門에서 稅前 571억원과 發電 石油化學·유탈유 등 기타 부문에서 稅前 1011억원의 수익을 시현하여 法人稅 등 1535억원을 납부하고 稅後 47억원의 수익성과를 얻었다.

즉, 79년에는 稅後 194억원의 이익을 시현 하였으나, 2차 石油危機의 영향으로 80년, 81년에는 각각 484 억 원, 22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82년에는 값싼 원 물시장의 원유구입 확대, 유전스 기간 단축 등의 경영

精油社의 損益상황

(單位: 억원)

		油公	湖 南	京 仁	雙 龍	極 東	計
1979	1. 세 전	233	161	33	-	5	432
	○精 油	0	122	▲21	-	▲5	96
	○기 타	233	39	54	-	10	336
2. 법인세 등		120	100	15	-	3	238
3. 稅 後		113	61	18	-	2	194
1980	1. 세 전	29	189	▲99	▲80	▲21	18
	○精 油	▲233	130	▲77	▲80	▲34	▲294
	○기 타	262	59	▲22	-	13	312
2. 법인세 등		376	109	17	-	-	502
3. 稅 後		▲347	80	▲116	▲80	▲21	▲484
1981	1. 세 전	68	▲56	187	50	6	155
	○精 油	▲58	▲104	134	▲5	▲11	▲44
	○기 타	126	48	53	▲45	17	199
2. 법인세 등		178	46	144	-	8	376
3. 稅 後		▲110	▲102	43	▲50	▲2	▲221
1982	1. 세 전	290	277	271	96	42	976
	○精 油	97	253	205	228	30	813
	○기 타	192	24	67	▲132	12	163
2. 법인세 등		131	124	148	-	15	418
3. 稅 後		159	153	123	96	27	558
누계 (79, 82)	1. 세 전	620	571	393	▲34	32	1,582
	○精 油	▲194	401	241	143	▲20	571
	○기 타	814	170	152	▲177	52	1,011
2. 법인세 등		805	379	325	-	26	1,535
3. 稅 後		▲185	192	68	▲34	6	47

〈註〉 其他部門내역 : 油公-석유화학, 유탈유
 湖南-유탈유
 京仁-발전
 雙龍-유탈기유
 極東-유탈유

효율화 등으로 인해 다소 호전 되었다.

80, 81년 精油部門의 결손이 막대하게 발생한 이유중 하나는 제2차 석유위기시 國內油価의 급등을 일부 완화코자 석유정책 수립에 있어서 가격안정에 중점을 둔 때문이다.

이러한 精油社의 이익금은 精油社의 수익부문인 發電, 石油化學 유탈유 등의 기타 부문을 포함하여도 국내 他産業 수준이나, 외국의 정유산업 수준에 비하여 매우 낮은 편이다.

國內産業別 매출액 利益率 比較 (單位: %)

年度	精油産業	건설업	제조업
1979	0.9	4	1.7
1980	▲1.2	2.2	▲1.0
1981	▲0.4	1.6	▲0.7
1982	0.9		

國別精油産業 배럴당 利益水準 비교

(單位: \$/B)

年度	韓 国	日 本	美国 (EXXON)	英国 (BP)
1979	0.22	0.82	2.21	4.05
1980	▲0.40	0.25	3.13	3.92
1981	▲0.17	0.76	3.32	2.44

또한 재무구조를 살펴보면 자기 자본 수익율이 타산업에 비해 월등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본회전율을 관찰함으로써 이해가 가능한데, 精油業의 자본회전율, 특히 자기 자본 회전율은 製造業 평균의 2-3배 수준을 유지 한다.

이와 같은 精油業의 높은 자본회전율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자본에 비해 매출액이 월등히 높아 資本의 활용도가 크게 높다는 해석이고,

둘째는, 매출액 규모에 비해 자본이 저조해 자본 부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精油産業의 자기 자본 비율은 製造業에 비해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형편인데, 따라서 精油業의 높은 회전율은 자본 회전이 우수하다는 해석보다는 原油價의 급등과 매출액에 비해 자기자본 규모가 늘지 않은 데 있다. 자본사정의 악화는 부채비율, 유동비율, 고정비율에서도 확인된다.

精油産業은 취약한 재무구조하에 계속 누적되어온 극

精 油 産 業 經 営 実 績 分 析

구 분	精 油 業					製 造 業				
	78	79	80	81	82	78	79	70	81	82
1. 수익성분석(%)										
총자본이익율	6.38	3.03	▲5.26	▲0.78	3.8	2.71	1.89	▲1.35	▲0.90	1.0
자기자본이익율	24.47	13.62	▲61.87	▲8.32	30.2	124.7	8.75	▲7.32	▲5.19	4.5
2. 활동성분석(회)										
총자본회전율	2.58	2.82	2.79	2.24	2.41	1.25	1.24	1.27	1.24	
자기자본회전율	9.90	12.66	32.78	23.75	19.29	5.76	5.72	6.88	7.18	
3. 재무구조비율(%)										
유동비율	125.7	113.7	91.7	99.2	95.9	109.8	102.2	98.9	95.2	112.0
고정비율	93.6	103.0	3205	266.4	217.4	223.4	231.0	263.2	264.1	170.4
부채비율	265.0	419.6	1,656.4	909.7	699.4	366.8	371.1	487.9	451.5	346.0
자기자본비율	27.4	19.2	5.7	9.9	12.5	21.4	21.0	17.0	18.1	22.4

(資料) 韓國銀行 기업경영분석.

도의 收益性 악화로 말미암아 에너지 및 精油産業 投 資 基 礎 를 상 실 하 여 정 상 적 인 기 업 경 영 이 극 히 어 려 운 실 정 이 다.

라. 政府依存의 深化

精油産業은 취급하는 물량과 금액이 다른 산업에 비하여 엄청나게 커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하고,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基礎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으므로 고도의 公益性和 함께 경제운영상 정부의 엄격한 통제 및 개입이 불가피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엄격한 통제는 民間企業으로서의 사업 활동 영역을 자연 제한하게 되었으며, 또한 사업성과는 정부의 정책과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되었다.

그 결과 精油産業은 지나치게 정부에 의존하는 체질이 되었고, 또 자주적인 경영 활동으로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또한 장기간 多國籍 企業인 메이저의 경영권 간여에 따라 국내 기간산업으로서의 自生力 배양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精油産業의 취약성은 제1, 2차 石油危機時 安정된 원유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 사회, 경제정책의 흐름이 점차 民間主導의 개방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精油産業에 대한 과거의 정부 주도적 管理体制는 기업의 자기 책임경영 체제로

전환될 것이며, 이에 따라 민간활력의 존중과 행정개혁의 점진적 축소 내지 완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무 구조가 취약한 精油産業은 스스로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며, 과거 고도 성장시대의 잔재와 같은 경영 감각을 청산하고, 자기 책임 경영의식하에 企業體質改善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II. 精油産業의 与件變化 展望

1. 需給狀況의 악화

가. 産油國의 下流部門 진출

최근 産油國들은 原油의 개발, 생산에 그치지 않고, 下流部門에의 관심을 급속히 높여 생산지 정유공장에서의 제품수출, 위탁 정제에 의한 제품 부가치의 취득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또한 소비국 하류부문에 자본참가의욕을 보이는 産油國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산유국 내의 석유수요 충족 및 原油의 부가 가치 향상, 나아가 石油에 대한 계통적인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産油國이 대형유조선 선단의 증강 추진, 精製能力의 확대추진 및 석유 화학 산업에의 진출을 본격화 함에 따라 原油-제품생산-수송의 일괄 거래(Package Deal) 방식이 점차로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사우디 아라비아는 84년 까지 현재의 하루 1백17만 8천 배럴 용량을 2백 29만 3천 배럴로 확장할 계획이며, 이라크, 쿠웨이트, 리비아, 알제리, UAE, 카타르 등도 정유시설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 결과 OPEC의 精製能力은 80년 6,002천 B/D에서 85년 8,705천 B/D로 증가될 예정이며, 세계전체 精製能力에서 OPEC 점유율은 현재의 7%에서 10%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OPEC 精製施設 확장 전망

(單位: 千B/D)

국 별	연도별	1980	1985	1990	
				최저수준	가능수준
사우디		760	2,060	3,010	a
이란*	1,290**	1,200	1,585	1,585	b
쿠웨이트	595	890	890	890	b
이라크	325	410	710	710	a
U. A. E.	16	220	400	400	a
카타르	11	110	260	260	b
小計	2,997	4,890	6,855	8,495	
알제리	170	650	825	825	b
에콰도르*	100	180	235	235	b
가봉	45	45	45	45	b
인도네시아*	545	895	1,075	1,075	b
리비아	150	360	360	360	a
나이지리아*	170	260	620	620	a
베네수엘라	1,425	1,425	1,425	1,425	b
OPEC 總計	6,002	8,705	11,440	13,435	

〈資料〉 OPEC DOWN STREAM PROJECT (RESOURCE SYSTEMS INSTITUTE) PIW

* 내수용 정제 시설만 증설. 나이지리아는 내수시설+수출용정제시설 (100-200천 B/D)

** 아바단 정유공장 제외, 신규대체 공장건설.

a: 비공식 자료, 과거실적 투자재원 등을 기준으로 추정.

b: 1990년 최저수준 기준.

이에 따라 OPEC의 제품 수출 가능량은 80년의 150만 B/D수준에서 85년에는 350만 B/D, 90년에는 400-550만 B/D로 증가함으로써, OPEC 총수출에 대한 제품 수출비율이 80년 6-7% 수준에서 85년도에는 14%, 90년도에는 18-26%로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OPEC의 정제시설 증가는 과거의 消費地精製라는 개념을 퇴색시키고, 세계 석유시장의 구조와 형태에 심각한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OPEC의 製品輸出 可能量

(單位: 千B/D)

	1980	1985 ¹⁾	1990	
			최저수준	가능수준
총施設能力(Stream Day)	6,002	8,705	11,440	13,435
제품생산1)	3,600-3,800	7,404	9,724	11,420
국내수요3)	2,400	4,067	5,995	5,979
제품수출가능량	-	-	-	-
-Net	1,200-1,400 ⁴⁾	3,337	3,745	5,441
-Gross	1,400-1,600 ⁴⁾	3,510	4,056	5,691
*OPEC총 수출에 대한 제품수출 비율	6-7%	14%	18-26%	18-26%

〈資料〉 OPEC Down Stream Project, PIW

- 1) 가동율: 85%
- 2) 확정계획
- 3) OPEC Secretariat Data
- 4)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자료 불충분.

또한 産油國의 석유류 수요는 중간유분 위주의 수요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세계 석유류 제품 시장은 B-C 유를 중심으로한 重質油 위주의 수요구조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OPEC의 油種別 製品輸出展望

(單位: 千B/D)

	페르샤灣	其他 OPEC	計	%
1985				
경질유	588	156	744	21
中間溜分	672	228	900	26
重質油, 其他	865	1,001	1,866	53
計	2,124	1,385	3,510	100
1990 (Minimum)				
輕質油	842	132	974	24
中間溜分	967	110	1,077	27
重質油, 其他	1,124	881	2,005	49
計	2,933	1,123	4,056	100
1990 (Likely)				
輕質油	1,162	188	1,350	24
中間溜分	1,478	244	1,722	30
重質油, 其他	1,656	963	2,619	46
計	4,296	1,395	5,691	100

〈資料〉 OPEC Down Stream Project PIW

이러한 産油國의 정유시설 확장으로 原油市場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 産油國은 원유수출과 부연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구입을 강요하거나, 또는 現物市場등에 제품을 투매할 우려가 있다.

85년 OPEC 원유수출량은 24백만 B/D라 가정할 때 85년 제품수출량은 原油 100배럴당 14배럴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現物市場 機能의 확대

現物市場은 그간 경기변동과 계절적인 수요변화에 따른 原油需給의 차질 및 유종간 제품수급의 불균형을 조정할수 있는 보조 시장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단기적인 수급조정 및 이익확보추진이 중시되어 왔다.

그러나 제2차 石油危機때 原油의 절대물량 부족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원유확보의 보조창구로서 現物市場의 역할은 더욱 확대 되었으며, 82년 이후 原油供給 과잉현상이 발생하자 現物市場은 産油國의 잉여물량 투매창구 역할을 담당하여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제적인 석유거래상, 또는 상당량의 비축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소비국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하여 現物市場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 거래 규모는 현재 세계 총 거래량의 3-5%(100-150만 B/D)수준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81년 까지 장기계약 原油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現物市場을 활용한바 있으며, 82년 이후에는 수급보다 低價의 원유도입에 따른 經濟性을 추구하기 위하여 도입물량을 확대하여 왔다.

現物市場 原油導入 推移

(單位: 천 B/D)

	79	80	81	82
全体原油導入量	185,513	182,861	172,816	178,369
現物市場導入量	2,942	5,640	4,703	8,295
現物市場비중%	1.6	3.1	2.6	4.6

한편 최근 석유 소비국들은 現物市場 등으로 부터의 석유제품 수입량을 증가하고 있어, 精油産業의 설비과잉을 초래하고, 경영을 압박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품 수입초과 현상은 美国등 전통적인 석유제품 수입국들의 수요부진으로 수입량이 둔화됨에 따라 現物市場의 수출전용정유 공장이 가동을 회복을 위하여 실발생 비용 이하의 투매를 성행하고 있으며, 産油國들도 이에 가세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인 석유수요의 침체와 정제시설의 가동율이 제고되지 않는 이상 계속 될 것이며, 더욱

기 장기적으로는 産油國의 수출전용 精油工場이 확대되고, 세계적인 유종간 수급 구조의 불균형이 발생함에 따라 현물시장의 기능 확대는 계속 될 것이며, 따라서 국내에서도 현물 시장의 투매물량 반입 압력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다. 石油依存度 감축의 추진

우리나라 중장기 에너지 수급 계획의 기본골격은 有煙炭 및 原子力의 사용을 증대시킴과, 天然가스의 도입, 사용으로 82년에 57.8%에 달하는 石油依存度を 2001년에는 32.2% 까지 감축 시키는 것이다.

제 1, 2차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석유가격은 계속 급등하여 왔으며, 세계 석유시장은 산유국의 政情不安, 부존량의 한계, 지역적인 편중등으로 수급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 이므로 에너지源을 다원화 하고, 저렴한 에너지 源의 활용 확대라는 정책방향이 결국 석유의존도의 감축으로 귀결되어 짐은 어쩔수 없는 흐름이라 하겠다.

中長期 에너지源別 구성비

(單位: %)

年度 分 区	82	86	91	2001
石 油	57.8	46.2	43	32.2
無 煙 炭	21.6	18.8	13.4	7.4
有 煙 炭	12.2	19.7	23.0	31.2
原 子 力	2.0	10.5	13.1	21.0
水力, 薪炭등	6.4	4.8	4.8	4.1
計	100	100	100	100

석유의존도 감축 정책의 주요 내용은 石油代替電源을 개발하고, 산업용 유연탄의 사용을 확대하며 가스 보급 기반을 조성 하는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 石油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문인 發電部門의 석유 의존도 감축은 전체 에너지의 석유의존도를 낮추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石油代替發電所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내 수력자원의 개발을 위해 多目的댐 건설은 물론 이용 가능한 小水力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 함으로써 82년 현재 69.7%인 석유 의존도를 91년까지는 16.7% 낮추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 政策資料 □

한편 산업체중 유류다소비 업종인 시멘트 산업은 83년 2월 모든 소성로가 유연탄 사용으로 연료전환을 완료 하였으며, 일반 산업분야에 대하여도 유연탄 사용을 확대 보급토록 전국 주요 항구에 석탄 전용 부두를 건설하고, 주요工團 지역에 Coal Center 를 건설하는 등 유연탄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정책적인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石炭의 생산제약과 수요의 고급화에 따른 가정용연료의 가스보급 확대 기반을 조성키 위하여 정부는 LNG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87년에 200만톤의 LNG를 도입하고 LPG와 도시가스의 확대보급을 통해 총가중 가스보급율을 82년 13%에서 86년에는 30%까지 확대, 보급 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석유의존도 감축정책의 강력한 추진은 석유소비를 억제시켜 제5차5개년 계획중 총 에너지 수요 증가율이 6.1%인데 비하여 석유수요 증가율은 1.8%의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精油産業의 위축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라. 油種間 需給 不均衡의 발생

앞으로 국내 석유류의 소비구조는 국제적 추세인 輕質溜分의 수요가 점차 증가 되는 한편, 重質溜分 수요는 감소될 전망이다. 원유공급의 重質化 추세, 산유국의 重質製品 수출확대 및 国内精油社의 분해시설 미비 등으로 장기적으로는 유종간 수급불균형 현상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1) 原油供給의 重質化

원유 매장량의 性狀別 구조를 보면, 輕質油는 전체의 45%이고, 輕質低硫黃油는 20% 수준에 불과하다.

性狀別 原油埋藏量 구성

(單位: %)

중경질유	硫黃	고 유 황	저 유 황	計
	중 질 유			
중 질 유		45	10	55
경 질 유		25	20	45
計		70	30	100

한편 세계의 石油類 소비구조는 수송용, 산업·주거용 및 석유화학용 등의 輕質油 중심의 소비 신장에 예

石 油 需 給 計 劃

(單位: 천배럴)

		81	86	평 균 증 가 율 (%)				
				82-86	76-79	80	81	
原油	도입	182,816	209,508	2.8	12.0	▲ 1.4	▲ 0.02	
	투입	178,332	201,408	2.5				
石油供給	이생월	10,681	15,020	7.1				
	산입	169,589	191,704	2.5				
	計	13,161	9,373	▲ 6.6				
		193,430	216,097	2.2				
石油需要	유종별	輕質油	84,211	123,566	8.0	15.2	1.0	0.1
		重質油	98,041	76,119	▲ 4.9	9.6	▲ 2.6	1.3
	유종별	에너지油	154,490	152,536	▲ 0.3	14.7	▲ 3.2	▲ 0.5
		非에너지油	22,798	32,026	7.0	17.7	9.3	▲ 3.6
		L. P. G.	4,964	15,123	25.0	18.6	45.1	10.3
	부문별	산업	67,934	79,255	3.1	10.6	▲ 4.4	▲ 7.8
		수송	39,607	62,248	9.5	15.8	▲ 11.8	11.0
		가정, 상업	16,146	20,141	4.5	51.0	51.8	2.2
		공공, 기타	10,194	14,126	6.7	▲ 1.9	18.3	▲ 26.6
		발전	48,371	23,915	▲ 13.1	12.2	▲ 2.7	8.8
計		182,252	199,685	1.8	13.0	▲ 1.0	▲ 0.7	
석유제품재고		11,179	16,412	8.0				

상되며, 이러한 수요구조는 결과적으로 輕質油의 공급 부족현상과 함께 重質油의 공급과잉 상태를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80년 현재 生産原油의 평균 API 지수가 33.7° 인데 비하여 제품수요의 경우, 평균 API 지수가 39.3° 로서 原油와 제품의 API 차이는 5.6°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90년에 이르면, 原油의 API 지수는 31.4° 로 더욱 重質化되고, 제품수요의 API 지수는 43.5° 로 더욱 輕質化 되어 原油와 제품 수요의 API 차이는 12.1° 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소비국 들은 輕質原油를 選好 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될 것이다.

製品別 石油需要(自由世界)

연도별	제품별	揮發油	中間溜分	잔사유	其他	計	API°
1973	백만B/D	11.5	13.5	13.1	9.1	47.2	38.0
	구성비(%)	24	29	28	19	100	
1980	백만B/D	12.7	15.3	12.2	9.2	49.4	39.3
	구성비(%)	26	31	24	19	100	
1985	백만B/D	13.3	16.7	12.3	9.8	52.1	39.3
	구성비(%)	26	32	24	19	100	
1990	백만B/D	13.8	17.5	11.5	10.2	53.0	43.5
	구성비(%)	26	33	22	19	100	

〈資料〉 World Energy Outlook to 2000 (CMB)

製品需要와 原油의 性状变化

구분	연도별	1980	1990	増減
(1) 원 유				
(1) API (°)		33.7	31.4	▲ 2.3
(2) Sulfur (wt%)		0.92	1.16	0.24
(2) 製品需要				
API (°)		39.3	43.5	4.2
API 차이 (°)		5.6	12.1	6.5

〈資料〉 PIW, World Energy Outlook to 2000 (CMB)

더욱이 輕質原油의 대부분이 低硫黃原油임을 감안할 때 세계적인 환경보전 움직임과 함께 輕質原油의 수요는 더욱 증대될 것이다.

이에 따라 산유국은 輕質原油保存政策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우디의 경우 현재의 輕/重質油 공급비율인 65/35를 50/50으로 전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수입원유의 重質化는 더욱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국내 생산제품중 重質油의 収率도 상대

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 産油國의 重質製品 수출

또한 産油國의 제품 수출은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주로 重質製品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고, 原油와 결합시켜 加매의 형태를 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생산 重質油의 처리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될 것이다.

(3) 國內油種間 需給不均衡 豫상

국내에너지중 石油類의 향후 소비구조는 輕質溜分의 수요는 점차 증가될 것이고, 重質溜分의 수요는 감소될 전망이다.

현재 강력히 추진되는 脫石油政策 및 에너지源의 다변화 시책에 따라 發電 및 산업부문에서 사용연료를 벵커-C油 등 重質油에서 유연탄, LNG 및 原子力 으로 代替, 중질유의 수요는 점차 감소될 전망이며, 수송부문 및 석유화학 분야에서의 輕質油 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이러한 소비구조의 輕質化 추세에 비하여 현재 국내 精油産業은 重質油를 경질유로 전환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실정인므로 장차 油種間 수급 불균형 현상은 불가피하며, 더욱이 原油의 중질화현상, 산유국의 중질제품 수출 추진에 따라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重·輕質油 過不足 豫상

(單位: 천B/D)

구분		연도				
		82	83	84	85	86
輕質溜分	수요	240	262	288	320	339
	공급	240	262	288	309	309
	과부족	0	0	0	▲11	▲30
重質溜分	수요	265	269	239	218	208
	공급	275	275	275	275	275
	과부족	10	6	36	57	67

따라서 수요와 공급 추이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重質油分解施設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2. 投資 소요의 증대

精油産業은 수급상황 변화에 따른 시장성 악화예상에

도 불구하고, 유종간 수급불균형 타개를 위한 重質油 분해시설 건설, 低硫黃 연료유 공급 확대에 따른 시설 보완 민간비축 확대에 따른 저장시설 건설, 송유관 건설 등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위한 시설보완, 重質原油 정제 시설 확보를 위한 증설 등 막대한 시설투자를 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 重質油分解設施의 건설

유종간 수급 불균형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현 정제시설과 輕質原油 사용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잉여 B-C 油를 輕質油로 전환하는 重質油分解設施(크래킹시설)이 필요하다.

더우기 重質油 분해시설은 低硫黃 연료유 생산이 가능하므로 환경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탈유황 공급 시책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重質油 분해시설은 다종류의 重質原油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產油國의 중질원유 강매정책을 예상해 볼 때, 원유도입선을 능동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原油導入先 多變化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중질유 분해시설은 86년에 30천 B/D 1基, 88년에 35천 B/D규모 1基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重質油 분해시설 설치에는 일반 정유공장 건설의 약 2배나 되는 막대한 소요자금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자금 조달은 현재 국내 精油産業의 수익성에 비추어 극히 어려운 실정이므로 별도의 정책적 자금지원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86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는 極東石油의 34천 B/D규모 크래커의 경우 소요자금은 1,715억원(외자 143백만\$ 포함)로 추정되고 있다.

나. 低硫黃 燃料油 공급의 확대

공해방지에 의한 환경보존 대책의 일환으로 대기오염 원인인 아황산 가스 배출을 근본적으로 감소 시키기 위하여 저유황유 공급율을 86년 까지 B-C 油는 67%,

크래킹 設施의 종류 및 所要資金

Cracking 시설의 종류	工 程 의 특 성	所 要 資 金	시 설 기 간	비 고
Thermal Cracking 1) Visbreaking	1) 고점도 重質油를 열분해 함으로써 점도를 낮추는 공정. 2) 비 탈황공정	10. MM\$ (18,060 BPSD) 556. \$/BBL	1 년 6 개월	○Mild Cracking의 일종임.
2) Delayed Coking	1) 아스팔트油를 고온에서 열분해하여 輕質油(LPG, 나프타 등, 경유)분과를 생산하는 공정임. 2) 原油의 질에 따라 코크스 제철용으로 생산 가능.	49. MM\$ (16,400 BPSD) 3,000 \$/BBL	1 년 6 개월	
3) Flexicoking	1) 아스팔트油를 고온에서 열분해하여 주로 가스 및 輕質油를 얻는 工程 2) 코크스가 분말 상태로 되어 수송취급이 용역함.	62. MM\$ (16,400 BPSD) 3,800 \$/BBL	2 년	
Catalytic Cracking 1) Hydrocatalytic Cracking	1) B-C油와 같은 重質油를 특히 등유, 경유 등의 重質油로 전환하는 공정임. 2) 이 경우 燈·輕油는 저유황 연료유로 됨(등유: 0.013%, 경유: 0.3%)	83. MM\$ (18,000 BPSD) 4,600 \$/BBL	2 년	○특히 脫黃을 겸한 시설로 저유황 연료유 공급에 적합함 포함.
2) Fluid Catalytic Cracking	1) B-C油와 같은 重質油를 특히 揮發油와 같은 輕質油로 전환하는 공정 2) 고온, 촉매에 의한 열분해 공정임.	68. MM\$ (18,000 BPSD) 3,800 \$/BBL	2 년	

〈註〉 極東石油의 크래킹 工程은 Delayed Cracking과 Hydrocatalytic Cracking의 혼합 공정임.

輕油는 100%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미 1981년 7월 부터 연료유중 유황함유량을 B-C油는 4.0 %에서 1.6 %로, 輕油는 1.0 %에서 0.4 %로 감소시켜 우선 서울 지역에 공급을 시작했으며,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중이며, 이를 위하여 低硫黃原油를 도입하는 한편, 일부 저유황B-C 油를 우선 수입하여 공급하고, 장기적으로는 향후 저유황원유 확보의 안정성에 대비하여 精油会社의 저유황연료유생산시설 및 대수요처에서의 배연탈황시설을 추진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低硫黃 燃料油 공급계획

(單位: 천 B/D)

구 분 \ 연 도		'81	'82	'83	'84	'85	'86
		B-C油	1.6 % 43	43	43	43	73
	2.5 % 10	20	30	90	60		
	計 (공급율)	53 (21)	63 (24)	73 (27)	133 (53)	133 (59)	157 (71)
輕油	0.4 % (공급율)	31 (28)	42 (33)	47 (33)	81 (53)	143 (84)	198 (100)

그러나 低硫黃原油를 도입하여 사용할 경우, 저유황 원유가 대개 왁스 성분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입출차 시설 및 수송설비의 보온 시설 보완이 필수적이다.

또한 탈황시설을 건설할 경우, 3만B/D규모 시설을 기준으로 약 1000억원의 막대한 투자수요가 필요하다.

다. 民間備蓄의 擴大

석유 비축은 경제, 군사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그 필요성이 인식되어 왔으며, 1973년, 1979년의 두 차례에 걸친 세계석유파동 이후 특히 OECD를 비롯한 선진 제국에서 경제적으로 비축이 추진되는 실정을 감안할 때 非産油開途國인 우리나라도 석유 비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병행하여 단계적으로 비축을 추진토록하되, 정유산업의 민간저장 시설은 제 5차 5개년계획 기간중에 60일분 수준을 유도할 계획이다.

83년 6월 현재 추진중인 저장시설 확대 규모는 11.5백만 배럴로 소요액은 950억원으로 추정된다.

라. 에너지 소비절약 시설의 보완 필요

유류수송의 에너지 소비절약 및 수용 한계점에 도달한 油類 수송수요의 애로 요인을 타개하고, 수송비 절감에 의한 소비자 가격인상을 억제하는 한편, 비상시 수도권의 안정적 유류공급을 위하여는 麗水-서울 및 蔚山-大田간 송유관 건설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하여서는 2,538억원(이자94백만\$포함)의 투자수요가 필요하다.

送油管 건설계획

구 분	송 유 관		저 유 소	
	구 간	연 장 (km)	위 치	저유용량 (천 Bbl)
1 단 계	麗水-서울	466	全州, 光州, 大田, 서울,	2,835
2 단 계	蔚山-大田	276	大邱.	560
計	2 개 구간	742	5 개 소	3,395

또한 精油工場의 열효율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의 교체 및 폐열회수 시설의 설치 등 시설개선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자금소요도 계속될 것이다.

마. 重質原油 정제시설 건설

産油國에서 생산되는 原油는 점차 重質化되고 있을 뿐더러, 유황 함량과 중금속 함량이 높아지고 있으며, 산유국은 輕質原油의 수요증가와 공급능력 부족으로 말미암아 輕質原油와 함께 重質油를 강매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例 멕시코의 Maya, 中東 산유국의 B-C油등)

그러나 국내의 기존 정제시설로는 이와같은 重質原油의 정제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값싼 重質原油의 전용처리 시설 건설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따라서 重質原油 정제시설은 시급히 건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極東石油의 경우, 소규모 정제시설에 의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정제시설의 경제 규모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極東石油 6만B/D 증설에 소요되는 투자액은 2,405억원으로 예상된다.

3. 경제, 사회 흐름의 변화

가. 消費地 精製主義의 퇴색

국내 정유산업은 消費地 精製主義 원칙하에 정착되어 왔다.

세계적인 소비지 정제주의 추세는 메이저가 石油의 개발생산 등 상류部門을 장악하던 1950-1970년대에 전개 성숙되었다.

당시 메이저는 세계 전락의 일환으로 原油價格을 低價로 유지하여 석유 수요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수송 및 정제부문등 하류부분에 적극 참여하여 다국적 기업으로서의 이익을 향수코자 노력하였다.

한편 석유소비국들은 국내에서 필요한 석유제품을 전량 원유로 도입, 정제, 공급함에 따라 부가가치를 국내에 잔류시킬 수 있었으며, 또한 석유수급 측면에서도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산유국의 자원 내서늘리듬 자각에 의한 제 1 2차 石油危機는 상류부분에 대한 메이저의 지배권을 상실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原油價 폭등으로 석유제품 가격중 原油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下流部門의 이익은 축소되게 되었으며, 석유 소비국의 消費地 精製主義에 의한 경제적 우월성은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 산유국의 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한 下流部門 진출 추진은 소비지 정제주의에 의한 공급체제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消費地精製主義는 產油國 정책 여하에 따라 生産地 精製主義, 즉 석유소비국의 제품수입 충당에 비하여 경제성이 떨어질 우려마저 있는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소비지 정제주의 기초하에 부가가치의 획득, 외화 절약 등 경제적인 이익과 안정적인 수급기반 구축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소비지 정제주의는 석유정책의 모체인 石油事業法의 근간이 되었으며, 정제시설의 신증설 관리, 原油導入, 생산 수출입 등의 수급관리, 가격의 정부 직접 규제 등 소비지 정제주의에 입각한 石油政策이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산유국이 下流部門에 적극 진출하고 現物市場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국내 석유제품의 수입 압력은 계속 고조될 것이며, 대내적으로는 정치, 사회, 경제 등 각 분야의 개방체제 확대 흐름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석유 수출입의 自由化와 석유 가격의 자율화 등 석유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消費地 精製主義 기조는 점진적으로 퇴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産業 지원제도의 변화

일반적으로 産業 지원제도에는 관련 특별법상의 지원, 稅制面의 지원, 금융면의 지원 등이 있으나 精油産業의 경우, 그 지원 규모가 점차 축소 되는 경향이 있다.

(1) 石油事業法上的 지원

석유 사업법상 精油産業에 대한 투자자금 지원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石油事業法에는 石油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석유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石油事業基金을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基金의 재원이 精油産業 자체 부담으로 조성된다는 점에서 여타 산업의 특별지원 제도와는 근본 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또한 基金의 용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精油産業에는 오히려 부담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다.

즉, 石油事業基金의 조성은 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 정제업자로 부터 징수하는 수입금 및 차입금, 또는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만 가능하나, 基金의 용도는 石油의 비축 및 저장시설, 석유 개발사업, 原油導入先 다변화의 지원, 에너지자원 개발사업 등에 걸쳐 광범위하다는 사실이다.

(2) 稅制上的 지원

精油産業은 현재 關稅法上 중요산업으로 분류, 도입되는 시설체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 있으나, 관세지원의 축소 및 기능별 지원제도의 지양 등 일련의 개편 추진에 따라 稅制上的 지원은 점차 축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金融上的 지원

精油産業은 그간 국가기간 산업으로, 한국산업은행의 출자, 국민투자자금 등 재정 금융 혜택을 받아 왔으나, 금융제도의 특혜금융 축소 및 금융자율화 정책의 추진 등 금융상의 지원도 점차 감소되어 정유산업의 신·재투자에는 한층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Ⅲ. 構造改編의 基本方向

1. 構造改編의 필요성

지난 1세기 동안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경제성장 및 생활 수준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石油 에너지는 절대 매장량의 한계 (可採年數 약 30년) 와 자원의 有限性을 인식한 産油國의 내셔널리즘 등장, 石油의 소유국 편중과 자원의 무기화 추세에 따른 가격 급상승, 이에 따른 원유수급의 불안정성 등 현실적인 여건하에서, 石油 에너지의 代替필요성이 강조되고, 그동안 石油 에너지를 기반으로 성장, 발전해온 산업의 재편성 움직임이 뚜렷한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국내에서도 에너지 수급 구조상 高價의 石油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石油의존도의 감축, 代替 에너지의 개발, 소비절약 운동의 범국민화 등 脫石油化 기운이 성숙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精油産業의 위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편 국내 精油産業은 제1, 2차 石油危機를 거치는 동안, 제반 경영구조가 극도로 취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精油産業에 대한 지원 제도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국내 유류수급 및 가격의 안정기반 구축을 위하여는 精油産業의 구조개선과 체질강화로 앞으로의 여건 변화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토록, 精油産業의 自生力 배양과 지원제도 보완으로 精油産業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構造改編의 基本方向

가. 構造改編의 基本방향

정유산업의 구조 개선과 체질강화의 목적은 精油産業의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케 하는 한편, 精油産業의 건전한 육성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장기적인 유류수급 및 가격안정을 기하여 국가 경제의 안정성장과 국가 경제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精油産業 구조 개편의 기본방향은 정제 시설의 효율성 제고와 경영합리화를 통한 기존 사업의 안정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綜合에너지 産業으로의 개편 등 사업 다양화를 추진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석유시장 위축에 대비토록 하며, 정부는 이에 따른 장기적인 지원제도 보완을 시행토록 하는 것으로

첫째, 精製設施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대외 부문에 수요를 창출하고 일부 상압증류탑과 휘발유 제조시설을 他용도로 改替 사용하는 등 유류시설의 적절한 활용을 추진하는 한편, 精油産業의 투자계획은 효율성의 최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한다.

둘째, 경영합리화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換리스 크 対策 등 경영구조의 안정성을 추구하고, 국제시장에서의 경쟁 능력 배양과 原價 절감 운동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이를 위한 국내의 石油情報體制 확립과 精油 관련기술의 적극 개발을 추진토록 한다.

세째, 또한 사업다양화를 통하여 석유시장 위축에 대비한 精油産業의 존립기반을 구축토록 한다.

특히 綜合에너지 産業으로의 개편은 精油産業의 에너지에 미치는 영향력과 자원개발, 수송, 대규모투자 등 사업 성격상의 유사성 및 精油産業의 존립기반 구축 등을 고려할 때, 국내 精油産業이 시추, 수송 등 上流部門, 석유화학, 윤활유 등 下流部門의 수직적 결합과 가스 石炭 新에너지 등 수평적 결합을 통하여 綜合에너지 産業으로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油種間 가격구조 개선, 油價自律化 추진 등 油價管理의 합리화와 수출입 제도의 보완 등 수급 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한편, 조세 감면 등 稅制支援과 금융지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나. 構造改編의 추진방법

정유산업의 구조 개편 추진은 기업의 경영전략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각 精油社는 自社 실정에 부합되는 능동적인 기업전략 구상으로 자체 능력을 배양토록 하고, 정부는 이러한 전략을 가능한 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민간주도 경제 체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조정을 시행토록 한다.

IV. 構造改編 推進計劃

1. 精製設施의 효율성 제고

가. 유류시설의 효율성 제고

유류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법에는 石油수요를 창출하는 방법과, 유류시설의 타용도 전환을 포함한 정제능력을 합리화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국내석유 소비를 늘리는 것은, 에너지 소비 절약 및 석유의존도 감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가 되므로, 고려될 수 없는 실정이며, 따라서 석유수요의 창출은 대외부문에 국한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석유수요를 창출하는 방법에는 貨加工輸出의 적극 추진 美軍納, 국제 벵커링, 수출의 확대, 내국적 외항선 및 외항기의 국내유류 적극 사용 등이 있다.

한편, 精製能力을 합리화 하는 방법에는 노후 정제시설의 단순 폐쇄와 타 용도로의 전환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단순 폐쇄처리는 시설의 잔여유용성을 고려할 때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1) 石油需要의 창출

国内貨加工 輸出은 82년 雙龍精油와 湖南精油에 의해 추진중이며 82년 貨加工으로 수출된 물량은 4,578 천 Bbl로 정제시설 가동율이 1.6% 상승 및 약 80억원의 수익증대가 가능하였다.

貨加工輸出은 국내 유휴 정제 시설의 활용, 精油社의 경영 부담완화 및 국제수지 개선 측면에서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貨加工輸出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유 수입시에 부과하는 석유 사업기금의 징수를 임가공수출 완료시 까지의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60일간 유예하고 있다.

또한 여유 나프타 개질시설(Reformer)를 활용하여 수입나프타를 高價의 개질나프타 또는 휘발유로 임가공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현행 환급 특례법에 의하여 수출용 원료로 수입되는 나프타에 대한 관세 및 방위세 환급제한 조치는 가능한 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美軍納 수출은 서북 태평양 지역의 美軍이 사용하는 油類를 국제 경쟁 입찰 방식에 의하여 공급권을 확보하는 수출방법이며, 국제벵커링 수출은 국내에 기항하는 외국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 대하여 급유하는 수출방법으로 에너지 정책의 기초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정제시설의 가동을 제고 방법이다.

美軍納, 국제벵커링 수출의 경우, 판매 가격은 국제

경쟁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내수판매가격은 달리 석유 제품에 부과된 각종 조세 공과금의 가격전가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대개 국제현물시장 가격에 준하여 형성되고 있다.

83년 6월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시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原油 수입시에 부과한 石油事業基金중 해당 제품 생산에 소요된 분을 환급토록 한 것은 이러한 취지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내국적 외항선 및 외항기에 대하여도 유동성과 실질 공급가능 가격을 고려할 때, 국제 벵커링에 준하는 제도적 보완으로 수요창출을 도모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수요 창출에 의한 가동을 제고는 精油社에 배럴당 1,350 원 수준의 固定費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2) 遊休精製施設의 처리

국제 精油産業은 상압증류탑 9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칭 정제능력은 790천 B/D 에 이르고 있다.

상압증류탑 9기중 6기는 revamp(시설 보완으로 처리능력확대) 하여 정제 효율을 향상시킨 바 있으나, 일부 상압증류탑은 사용년수가 20년에 이르러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 보수비의 과다, 에너지 다소비에 따른 원가상승 등으로 시설폐쇄, 또는 전면 개선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精製施設의 적정가동율은 수요의 계절성과 정기보수기간의 소요 등을 감안할 때, 연평균 75-80% 수준이 적정하나, 제2차 石油危機 이후의 석유수요 침체에 따라 82년 가동율이 60% 수준에 머무르는 시설 유휴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유휴 정제 시설에 의한 고정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石油수요의 창출과 함께 정제 시설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며, 정제 시설의 합리적 조정방법은 시설의 잔여능력을 감안할 때, 단순 폐쇄처리 보다는 他용도로의 전환이 일반적으로 바람직 하다.

특히 油公 1호기(55천 B/D)와 湖油 1호기(100천 B/D)의 경우에는 시설의 노후 정도를 감안할 때, Mild Cracking 의 일종인 Visbreaker 시설로 전환하여 輕質油 증산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例) 湖油 1호기 전환사용

- 상압증류탑을 Visbreaker 겸용으로 전환사용.

石油製品 輸出實績

(單位: 千 Bbl)

	'79	'80	'81	'82
一般輸出	659	66	3,084	2,326
국제벵커링수출	1,506	1,393	2,249	1,385
美軍納 수출	1,713	712	1,560	2,412
計	3,878	2,171	6,893	6,123

国内精製施設現況

社 別	施設別	精製能力	建設年度	Revamp 年 度	稼動年數	향 후 가동전망	Scrap 예상년도	비 고
油 公	Unit 1	55	63. 12	67. 5	19 年	5 年	'87~'88	가 동 가 능 년 수 20~25년
	" 2	110 "	68. 4	72. 9	14	10	'92~'93	
	" 3	115 "	74. 6	78. 8	8	16	'98~'99	
	小 計	280 "	'63~'74	'67~'78	8~19	5~16		
湖 油	Unit 1	100 "	69. 6	70. 10	13	8	'90~'91	
	" 2	130 "	72. 9	78. 11	10	16	'98~'99	
	" 3	150 "	81. 4	—	2	19	—	
	小 計	380 "	'69~'81	'70~'78	1~13	8~19		
京 仁 雙 龍 極 東	Unit 1	60 "	71. 4	72. 10	11	10	'92~'93	
	" 2	60 "	60. 5	—	2	18	—	
	" 3	10 "	78. 7	—	4	16	'98~'99	
計		790 "			1~19	5~19		

- 투입 B-C油의 약 30%를 경질화.
- 시설전환 소요자금: 22백만달러.

한편 揮發油 제조시설(Reformer)의 가동율도 30~40% 저조한 상태이므로 석유화학 원료 제조 시설인 B TX 시설로 改替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제시설의 改替를 위하여는 막대한 투자재원이 소요되므로 국민투자 기금 사용등 제반금융 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대수요처의 유류구입시 정제 능력에 따른 물량할당 방법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나. 투자계획의 효율성 제고

精油産業은 가동을 저하에 따른 유휴설비를 보유하면서 수요구조의 輕質化 및 탈유황화에 대처할 뿐만 아니라, 비축시설을 확대하여야 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따라서 精油産業의 투자계획은 시설의 중복으로 과잉 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크래킹 施設과 탈황시설 건설 등은 서로 연계성을 갖고 있으므로 각 투자 계획의 상호 보완이 가능토록 하여 효율성을 제고 하여야 할 것이다.

(1) 크래킹 施設과 탈황시설 건설의 상호보완

탈황시설의 건설은 막대한 투자재원이 소요될뿐 아니라, 장차 예상되는 B-C油의 수요감퇴에 따라 탈황시설의 적정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크래킹 시설은 제품의 輕質化와 함께 탈유황화도 가능하므로 低硫黃 연료유 공급은 크래킹에 의한 생산을 우선토록 하고, 부족분은 저유황原油, 또는 탈황시설 건설로 해결토록 한다.

(2) 크래킹 施設과 정제시설 증설과의 연계성

크래킹 시설 건설을 증설과 동시에 추진할 경우, 총괄적인 설계 및 부대시설의 단일화가 가능함에 따라 20-30% 정도의 건설비용 절감이 가능하므로 크래킹 시설 건설은 가능한 한 정제시설과 병행하여 건설함이 효과적이다.

(3) 크래킹 施設과 노후설비 전환의 상호보완

가동을 제고를 위한 저효율 노후 상압 증류탑의 Mid Cracker 전환사용과 증설시의 Heavy Cracker 건설을 병행 추진하여 경질화율을 최대화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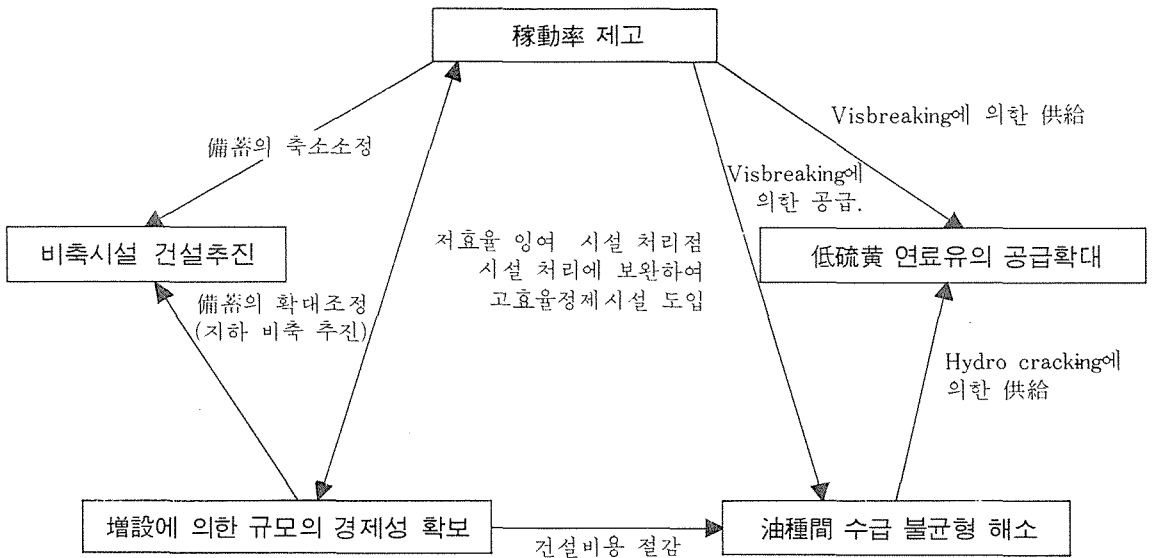
(4) 증설과 노후설비 처리의 상호조정

저효율의 노후설비는 가용년수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폐지, 또는 전환 사용토록 하되, 重質原油 처리를 위한 고효율의 정제시설 증설 이전에 처리토록 하여 일시적 시설 과잉 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5) 민간 비축시설 건설의 조정

노후 정제 시설을 정비함에 따라 민간비축 시설 건설 계획도 조정토록 한다.

投資의 효율성 제고



2. 經營合理化의 적극적 추진

가. 換리스크 対策

變動換率制下에서는 계속적인 換率의 등락이 예상되므로 換率의 변동에 따른 原油코스트 자체의 변동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하나의 유효한 수단으로서, 가능한 한 原油구입 시점에서 최종적인 原油코스트를 확정하는 것, 즉 원유구입 시와 유전스 제시와의 사이의 換리스크를 회피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換리스크 対策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수입금융의 원화 금융화와 선물환거래로 대별될 수 있다.

換差損의 발생은 주로 시퍼즈 유전스 및 수입유전스 기간중의 환율 변동에서 유래되므로 原油가 달러 결제로 구입되는 이상, 시퍼즈 유전스의 기간에 대해서는 선물환거래에 의하여 換리스크를 회피할 수 밖에 없으며, 수입유전스 기간에 대해서는 그것을 원화 금융화, 또는 선물환거래를 함으로써 그 동안의 換리스크, 換差損의 발생을 방지할 수가 있다.

換率이 급상승할 시에는 일반적으로 원화 금융화가 선물환거래보다 우월하나, 各社의 금융기간의 대부분도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外換수지 측면에서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운용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換리스크 対策에 있어서 원화 금융화 또는 선물환거래 선택은 각기업이 자기 판단에 의하여 가능한 한 換差損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精油産業은 換리스크에 대비하여 유전스 사용규모를 적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유전스는 國際金利의 변동에 따라 적용 이자율이 바뀔 뿐만 아니라, 換리스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유전스 잔액이 클수록 기업의 수익성은 외부환경 변화에 보다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유전스를 축소 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평균 210일의 유전스를 사용하고 있는 日本의 예를 들면, 精油社의 손익이 완전히 換差損益에 좌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原油導入 유전스를 최저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시설 투자는 원칙적으로 자기자본, 또는 장기 차입금으로 조달토록 하고, 설비 투자의 재원으로 일시적으로 유전스를 이용하였을 경우,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차관 등 고정부채를 도입하여 유전스 운영을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精油産業은 민간 비축확대 정책에 따른 재고 비축에 있어 재고 비축에 소요되는 자금을 原油유전스 사용금액 확대에 충당하는 방법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日本 石油企業의 수익동향

(單位： 億円)

	'77	'78	'79	'80		'81 상 반 기
				상 반 기	하 반 기	
영 업 손 차	△ 295	△ 1, 879	6, 991	1, 312	△ 2, 027	△ 1, 793
환 차 손 익	3, 145	2, 393	△ 4, 076	3, 491	2, 344	△ 2, 881
경 상 이 익	2, 850	534	2, 915	4, 803	317	△ 4, 675

따라서 운용 재고 수준이상의 재고 확보는 그 목적이 고정적인 비축에 있으므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原油나 석유 제품을 비축할 경우, 油價의 상승이 격화될 때, 상당한 차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 차익을 배당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공개시장에서 비축 소요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재고차익의 처리 문제이다. 재고 차익이란 原油 또는 石油製品 가격이 상승됨에 따라 보유재고의 가치가 높아짐으로 해서 얻는 이득이다. 이러한 이득은 현금의 수입을 수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결산상 순이익으로 나타날 경우, 과세대상이 되어 현금의 社外유출이 일어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재고 이익으로 인한 순이익을 배당할 경우, 그만큼 추가 자금이 필요하므로 불필요한 原油導入 유전스의 증가를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재고이익이 실현되었을 경우,

사내적립금으로 처리하여 배당을 억제하여야 할 것이다. 자기자본의 증대는 순이익의 사내유보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임의적립금 형식의 사내유보도 기대할 수 있겠으나, 고정자산재평가를 통해 감가상각 충당금을 현실화 함으로써 실질적인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기할 수 있으며, 최근과 같이 國際金利나 換率변동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에는 換率변동 준비금, 또는 국제금리 변동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稅制上의 지원을 제도화 하는 것도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통해 原油導入 유전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한편 精油産業의 換리스크 발생을 완화하기 위하여는 油價管理에 있어서도 換率, 원유가 연동제도입과 함께 정부부문비용의 원貨기준 징수 방법의 채택이 필요하다.

특히 原油 수입시 정액으로 부과되는 石油事業基金은 징수 규모를 원貨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항 목	장 기 추 진 방 향
(자 산)	
○유동자산	
비축재고	○비축채권 발행 검토
운영재고 및 기타	○유전스 활용으로 조달
○고정자산	
재 투 자	○감가상각충당금 및 이익잉여금으로 충당
공해방지투자	○장기차입금 및 이익잉여금으로충당.
신규투자	
(부채 및 자본)	
○고정부채	○시설투자에 사용된 유전스는 조속 장기차입금으로 전환
○자본 순이익	○적정 이윤확보
	○자산재평가 실시로 감가상각 충당금 현실화
	○외환차손충당금 등 설정
사내유보	○제고이익의 배당억제

나. 原價節減의 적극 추진

精油産業의 원가 절감을 위하여는 이미 추진하고 있는 工程의 열효율향상과 精油社間의 제품 교환에 의한 수송비 절감을 적극 확대하여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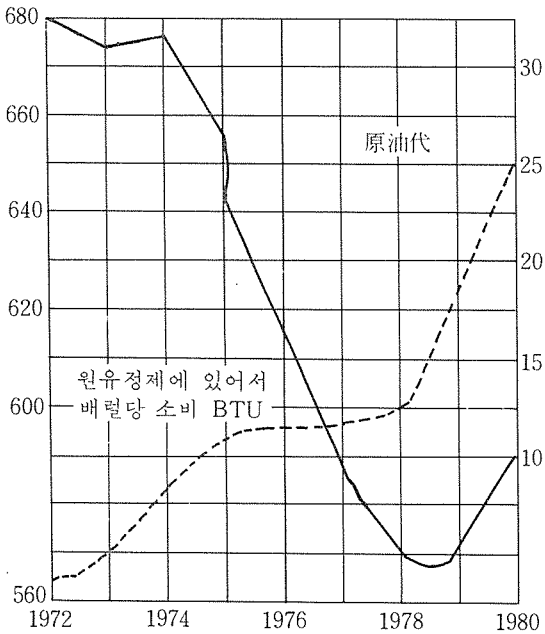
精油産業은 그간 폐열회수보일러 설치, 폐가스회수 가열로 熱효율향상 및 강화 등 工程 개선으로 상당한 원가 절감을 시현한 바 있으며, 향후 이러한 노력은 더욱 필요시 된다.

美國의 精油産業의 경우 두 차례에 걸친 石油危機를 거치면서 에너지 효율화에 최대의 역점을 기울인 결과 精油部門에서 배럴당 에너지 소비량을 72년 대비 20% 절감시키려는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며, 오는 85년 까지 다시 8%를 추가절감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유류수요의 격감으로 낡고 효율이 낮은 정유공장의 폐쇄가 잇달아 앞으로 정유공장의 에너지 효율은 더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精油会社 폐열회수 및 활용설비

社別	事業名	投資額 (백만원)	절감액 (년간) (백만원)
油公	1. 제 3 상압증류시설의 가열로 열효율 향상 (공기 예열기 설치로 폐열회수)	2,000	1,580
	2. NCC 폐가스 회수시설	76	139
	3. 등유탈황장치 열교환기 설치	205	16
	4. NCC 급냉탕 개조 및 열교환기 설치	935	451
	5. NCC 가열로 열효율 향상	427	1,063
	6. 중력에 의한 원유 이송설비	70	122
湖油	1. 폐열회수 보일러 설치	5,800	5,349
雙龍	1. 응축수 회수시설 설비	63	30
京仁	1. 열교환기 등 7 개품목 개제	300	106
	2. 보온보강공사	70	45
	3. 폐열이용 원유 예열용 열교환기 설치	120	100
極東	1. V. D. U 열교환기 9기 제작 설치 복수회수시설, 보온강화.	748	500

美國의 에너지 消費와 비용추이



* (資料) 美 에너지省

따라서 精油産業의 원가 절감을 위하여는 현행 에너지 절약 시설에 대한 금융 지원제도는 계속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정유 사별 전국 각지역 수요처에 직접 공급함에 따른 수송비 낭비를 개선하여 精油社間 제품교환으로 수송거리를 단축토록 상호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제품교환 확대를 위하여는 지역별, 사별 물동량 및

제품교환 대상의 신속한 파악이 가능토록 정유사간 정보 시스템의 On Line化 등 국내수급 상황에 대한 전산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다. 관련기술의 개발촉진

세계적인 原油의 重質化 추세와 소비의 輕質化 추세라는 이율 배반적인 현상하에 고도 기술집약 장치 산업인 精油産業은 적극적인 관련 기술 개발이 요청되고 있다.

특히 크래킹시설 건설과 관련한 중간 유종의 최대생산 工程 등 重質油 분해기술과 코크스 등 부생저질잔사유 이용 기술의 조속한 개발이 필요하며, 최근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정제 기술 등 신기술에 대한 정보를 계속 수집하여 신기술 확립시 조속한 기술 도입이 가능토록 기반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 절약 기술 및 폐가스 또는 공정 부산물을 석유화학 원료로 사용하는 기술도 계속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工程관리에 있어서도 전산화에 의한 공정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석유제품의 품질개선도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事業의 다양화 추진

가. 사업다양화의 필요성

石油의 상대적 高價에 따른 에너지源의 석유 의존도 감축 및 代替에너지 개발 등의 요인으로 향후 석유수요는 그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精油産業의 위축은 불가피한 실정임으로 사업의 다양화를 통하여 존립기반 구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 精油産業을 모체로 하여 上下流部門에의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石油代替 에너지 개발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綜合에너지 産業에도 그 사업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안정성장을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나. 수직적 참여의 확대

(1) 上流部門(Up-Stream) 참여

精油産業은 사업자체의 안정된 기반 구축을 위하여 일

차적으로 수직적 사업참여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즉, 上流部門(Up-Stream) 진출 확대방안으로 국내의 石油油田개발 및 가스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原油 및 가스 운송사업에 참여하여 석유유통시기에 대비한 안정된 원료 확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국내의 유망 광구에 대한 시추 사업에 참여하고, 기개발 광구를 인수하여 개발하는 한편 메이저와의 합작 및 기술협력 등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油田개발 탐사에 관한 기술축적과 정보기능 강화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2) 下流部門(Down-Stream) 참여

석유화학 및 운환유 사업 등 下流部門(Down-Stream)에 대한 사업확대는 사업의 유사성 및 계열화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가장 용이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石油化学産業은 우리의 의식주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각종 제품을 생산하는 소재산업으로 국민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신수요 창출이 가능하며, 기술개발을 통한 신제품 개발전망이 밝아 장차 유망업종으로 투자 가치를 갖고 있다.

精油會社의 石油化学 참여는 석유정제에서 최종 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계열화를 통한 원가 절감이 가능하므로 국제 경쟁력 향상이 가능하며, 오늘날 石油化学産業의 기술 개발은 고부가가치제품 개발의 역점을 두고 있으며, 연구 투자를 위한 자금동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精油會社의 참여를 통한 석유화학회사의 대규모화 계열화가 오히려 요청되는 실정이다.

다. 綜合에너지 産業으로의 改編

(1) 石油代替事業의 참여 의의

精油産業의 성장한계를 감안할 때 기업의 장기적인 안정성장 및 존속을 위하여는 기존사업 범주를 과감히 탈피하여, 그 동안 에너지 주공급원이었던 精油産業의 운영 경험을 살려 에너지 관련 분야에 적극 진출하여 綜合에너지 企業으로서 성장 전략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정유산업의 綜合에너지 企業으로 성장 전략을 추구하여야 하는 당위성으로는 첫째 기존에너지 사업 운영 경험 및 영향력을 심분 활용 기존 기술 및 판매조직 활용이 용이하며,

둘째·막대한 시설투자 소요 및 사업의 공익성 등 기존 정유산업과 사업 성격상 유사하며

셋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내에너지 수급 추진이 용이하고

넷째, 民間企業으로서 창의와 효율성 발휘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들 수 있다.

(2) 사업참여 분야

(가) 가스 事業

가스는 사용의 편의성과 無公害 연료로서의 利點을 갖고 있어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으며 정부의 가스 보급확대정책에 힘입어 국내 LPG 수요는 연간 20~30%에 달하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精油産業은 앞으로 예상되는 가스수요의 확대에 대비하고 代替油種의 수요감퇴에 따른 수익성 보전을 위하여 LPG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산유국과의 유대관계 활용으로 안정된 공급체제 구축이 용이하며 기존판매조직을 심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한편 LPG는 풍부한 매장량과 개발 가능성으로 인하여 석탄과 함께 향후 공급한계가 예상되는 石油를 代替할 수 있는 主에너지源으로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사용이 편리한 가정용 연료의 장기 안정적인 확보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는 80년대 하반기에 LNG 도입이 본격화될 예정이며, 이러한 대형에너지 사업에 민간 기업으로서의 精油産業 참여도 절실히 요청되는 실정이다.

(나) 石炭개발사업

石炭은 전통적으로 1차 에너지源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나 石油에 밀려 그 역할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무진장한 매장량과 생산코스트가 저렴한 점을 감안할 때, 상당기간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위치를 고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70년대에 두 차례의 석유 파동을 겪은 후 石油價格의 高價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세계적으로 석탄 교역은 증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현재 건설중인 발전소 및 철강 시멘트 업계의 연료대체추진 등으로 지속적인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따라서 精油業界는 해외유연탄 개발 수입 등을 통하여 석탄 산업분야 진출을 적극 모색해야 하며, 개발 수입된 유연탄의 국내 소비확보 비유체고와 잉여 重質油 처분을 위해 發電事業 진출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 기타 에너지 관련 사업

70년대 이후 두 차례의 에너지 위기를 경험한 후 石油 代替 에너지 개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제 성 있는 代替 에너지 개발은 금세기 중에 풀어야 할 공동 과제이며, 21세기 유망기술 개발분야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부존 자원이 빈약하여 국가경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에너지원을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현상황하에서 代替에너지 개발에 집중적인 투자가 요청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이미 기술적인 문제점은 해결되었으며, 경제성 등의 이유로 인하여 본격 개발에 들어가질 못하거나 아직 실험단계에 있는 각종 代替 에너지 개발 분야는 태양에너지, 風力, 潮力, 지력, 파력 등 自然에너지 이용분야와 합성연료 및 바이오매스 등 다양하다.

국내에서도 정부 및 일부 관련 기업에서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거나 참여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투자 자금 조성의 어려움이나 기술 축적의 빈약으로 뚜렷한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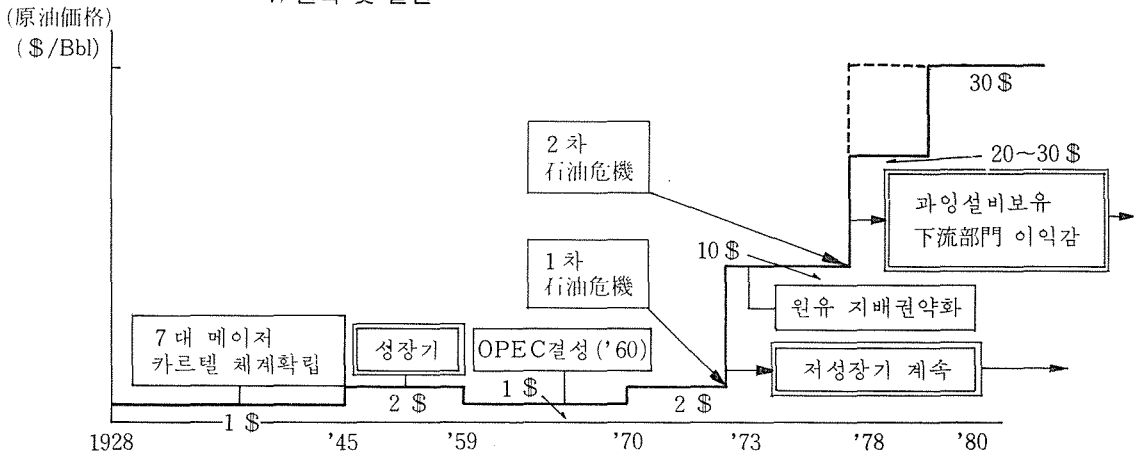
따라서 精油業界는 기존 에너지 공급업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에너지사업 운영경험 및 기술을 토대로 사업참여를 적극 추진하여 성장의 돌파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적인 사업으로서의 代替 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을 중시하여 稅制 및 금융 지원 등을 통하여 이를 최대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라) 국제石油메이저 기업의 사업다양화 추진내용

• 국제적으로 石油 관련 산업에 다양하게 참여, 안정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石油메이저의 변화과정 및 사업확대 전략을 검토.

(1) 연혁 및 발전



(2) 안정성장을 위한 사업 다변화

(기준 : 1981년)

구분	Exxon	Shell	Mobil	Texaco	Socal	B/P	Gulf	
매출액(억\$)	1,151	794	686	551	466	306	305	
구성비 (%)	원유	69.2	21.1	16.1	N. A.	33.6	45.9	N. A.
	정유제품	14.9	62.9	56.9		57.5	21.9	
	기타에너지(석탄, 가스 등)	6.5	4.2	10.9		3.2	12.8	
	화학	6.2	9.5	7.3		2.6	6.6	
	관계회사투자 및 기타	3.2	2.3	8.8		3.1	12.8	
매출액성장률('77~'81)	18.5	15.3	18.7	20.1	19.9	19.8	19.9	

(3) 戰略展開 추이

구 분	1 차 石油危機 이전	1 차 石油危機 이후	2 차 石油危機 이후
	(1928~'73)	(1974~'78)	(1979~1982)
메이저와 OPEC의 관계	메이저	OPEC	
전 략 방 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메이저 카르텔 • 제품시장통제 및 원유 생산조정 ○2 차대전 이후 • 代替에너지 개발 모색 - 石炭, 우라늄, 비철, 금속 등 고체 광물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진국 중심의 上流部門 투자 (美国, 북해, 캐나다 등) • 정치적안정 및 석유가격상승으로 “대규모투자”에 의한 고수익의 정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原油 Reserve 확보 • 油田개발 투자 강화 • Independent Refinery 계열사 흡수, 합병석유요청체 및 Anti-Trust 분위기 고조-소강상태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下流部門 재정비 강화 • 비효율적 정유공장 폐쇄 • 설비현대화 및 신규정유공장 건설. • 산유국 下流部門과의 제휴시도. - 플랜트 건설, Operation 및 Trading 능력활용 - 産油國에의 영향력 증대 도모. • 油價 장기 안정전망 - 代替 에너지 사업 재검토.

(4) 戰略開發 방향

石 油 會 社		化 学 會 社
SHELL	EXX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화학 반응 촉매 ● 고 분 자 ● 윤 활 유 ● 고압석탄, 가스 ● 석 탄 미 분 체 ● 우 라늄 탐 사 ● 태 양 발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제 프로세스 ● 에 너 지 절 감 ● 석 탄 액 화 ● Solar Collector화학품 ● 자 동 차 부 품 ● 반 도 체 ● 항공안전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生命工学 관련기술 ● 고기능성 고분자 응용기술 ● 도로, 접착제, 첨가제 등 기능성 화학품 ● 정보, 電子工学 등 요소 기술과 응용에 관한 기술.

4. 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용

가. 石油政策의 지원

(1) 油價管理制度의 개선

현재 석유류 제품 가격은 정부에 의해 직접 규제되고

있으며, 유종별 가격결정에 있어서 민생 안정 및 산업정책적인 측면을 중시하여, 현재 국내 油種間 가격구조는 시장 경제 원리에 입각한 국제 가격 구조와는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유종간 가격 구조의 왜곡은 자원의 효율적 배

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精油産業의 장기 안정적인 수급 기반 구축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의 重質油잉여, 輕質油 부족 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重質油 분해시설 건설 추진이 필수적이거나, 현재의 왜곡된 가격 구조하에서는 重質油 분해시설의 수익성이 미약하여 시설도입이 불가능한 상태인 바, 가격 구조 정상화에 의한 효율적인 투자 유인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며, 따라서 유종간 가격구조는 국제 수준에 접근되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의 직접 규제에 의한 油價管理 方式은 관리상의 경직성을 내포하고 있어 조정요인의 누적적인 반영에 의한 충격과 조정시점 지연에 따른 精油社의 체질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油價 관리 방식에 있어서 대내의 여건 변화를 신속히 흡수 할수 있는 原油價와 환율 변화에 따른 油價 자동반영제는 조속히 도입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油價自律化도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가 자율화의 단계적 추진시에 자율화 품목의 유가 반영기준 가격은 가능한한 시장의 실제가격을 적용토록 하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需給管理制度의 개선

국제 석유 시장의 消費地精製主義 퇴색과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개방체제 확대 흐름에 따라 석유 제품에 대한 수출입 제한도 점진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며, 또한 油價自律化 시에는 수출입 자율화도 필수 불가분하게 병행 추진되어야 할 실정이다.

이러한 수급관리의 변화 전망은 소비지 정제주의 기초하에 정착되어온 精油産業의 입장에서는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精油産業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는 장기 안정적인 수급관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특히 예상되는 産油國의 투매 제품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할수 있는 기금 장벽등 보안장치의 적절한 운용이 절실히 요청된다.

한편 유통질서의 확립과 유통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석유 유통 구조는 계속 개선되어야 하며 석유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사업자 간의 과당경쟁은 지양되어야 한다.

(3) 基金制度의 개선

기금징수에 있어서, 換率급상승에 따른 精油社의 추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는 현 달러화정책제를 원화기준 정책제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며, 原油價의 급등 시에는 기금 징수 규모를 축소하여 완충하는 한편, 징수 시점을 현행 선적후 30일 기준에서 판매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한 시점 기준(약90일)으로 연장하는 등 급격한 精油産業의 자금 부담을 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기금용도에 있어서 비축 기금의 민간 비축 지원에의 활용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에너지 기금에서의 정유산업 투자재원 조달법안도 계속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나. 稅制, 金融 制度의 탄력적 운용

(1) 稅制의 탄력적 운용

현재 석유류에 부과되는 精油部門 비용은 他 경쟁상대국에 비하여 과도한 실정이므로 석유류 가격의 高價 유지가 불가피하여 이에 따라 산업 및 가계활동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에너지 비용의 압박으로 기업활성화, 수출 증대 및 민생안정에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石油類에 부과되는 租稅 규모는 가능한한 축소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금번 原油價 하락시, 재반등에 대비하여 부과한 關稅, 基金 등 정부 부문비용은 국내 油價 인상요인이 발생되는 대로 완충 재원으로 활용, 축소 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石油危機 시에는 유류관련 세 징수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揮發油에 부과된 과도한 特別 消費稅(100%)는 그간 석유수급의 차질과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짜 휘발유의 등장 등 사회전반에 물의를 일으킨 바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축소 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민생용 연료인 프로판의 특별소비세 부과는 특소세부과 근본 정신에 어긋나므로 가능한 한 특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중질유 분해시설, 비축시설 등 精油産業의 신규 투자에 대하여는 법인세액공제 또는 특별상각적용에 의하여 막대한 자금 부담을 일부 완화토록 하는 한편

민간 비축용 유류 구입시에는 관세 및 방위세의 징수유에 내지 감면하여 민간 비축 수준을 제고토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관세 감면에 의한 지원 제도도 일층 강화하여 原油 관세부과에 따른 정유산업의 부담을 기능별 지원으로 보완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수출용 원재료로 도입된 납사에 대하여는 관세 및 방위세의 환급이 가능토록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2) 금융의 지원 강화

精油産業은 시장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重質油 분해시설, 重質原油 정제시설, 비축시설등 대규모의 신규투자가 계속적으로 요청되는 바, 精油産業의 공익성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신규투자에 대하여는 국민투자기금 등 재정금융을 계속적으로 우선 확대지원 받을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할 것이며, 에너지 합리화 기금에 의한 지원 또한 계속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産油国短信 □

産油国, 油價割引 가능성 높아

西方国 석유消費增加率 둔화로

올해 世界石油消費量은 다소 증가되기는 했으나 그 增加幅은 당초 예상보다는 적었으며 非共產世界의 石油需要는 盛需期인 올 4·4分期 중에도 石油輸出国기구(OPEC)에 대폭적 増産을 허용할만큼 충분히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런던의 石油소식통들이 전했다. 이 소식통들은 弱화된 수요예상에 따라 財政的인 압박을 받고있는 일부 産油国들이 판촉을 위해 일방적으로 割引價格에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OPEC는 지난 9월중 하루평균 1천 8백50만배럴의 産油量을 기록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 올해 残余기간중 石油需要는 이 수준보다 낮은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 생산수준의 유지나 더이상의 증산이 石油수급구조를 不安定케 하거나 가격을 떨어뜨릴 것으로 석유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업계전문가들은 西方의 石油수요가 빠르시일내에 늘지않는다면 일부 OPEC 국가들은 가격을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실제로 지난달 美관리들은 OPEC 일부산유국들이 비밀리에 가격인하 제의를 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유럽 石油업계는 올 잔여기간중 石油수요가 급격히 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앞서 추정

했던 올해 수요량을 下向조정하고 있으며 파리의 IEA(국제에너지기구)의 한자료는 올 4·4 분기중 OPEC의 産油量이 하루평균 1천 8백10만배럴 정도가 될 것으로 어렵하고 있다.

올 4·4분기중 西方세계의 수요예상은 엇갈리고 있는데 OPEC에 정통한 한 中東 전문가는 OPEC가 올 4·4분기의 수요를 하루평균 4천 6백20만배럴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난 3·4분기 중엔 4천 3백10만배럴이었던 것으로 어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IEA 등은 이보다 낮은 4천 5백70만배럴로 잡고 있으며 일부 유럽 메이저들은 올 4·4분기중 西方수요가 4천 3백만배럴 내지 4천 3백60만배럴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IEA와 메이저들은 올 3·4분기중 석유수요가 하루 평균 4천 2백70만배럴내지 4천 2백80만배럴선으로 잡고있는데 당초 예상은 4천 3백50만배럴 이었다.

서방석유업계는 西方세계의 내년도 수요 역시 82년과 83년보다 별로 개선되지 않은 하루평균 4천 3백50만배럴 내지 4천 5백만배럴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